



케리그마

KERYGMA

◆케리그마(KERYGMA)란 그리스어로 복음선포라는 뜻입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
전화 (051) 583-6314/5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8)

원장수녀 신 크레센시아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선교 사명은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나 자신이 비록 현지에 가 보지 않았지만 선교지에서 오는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은 애잔함과 보람으로 콩닥거립니다. 유다 산골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체험했던 그 기쁨은 나의 정성어린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고 평화와 희망의 노래가 되어 지구촌에 울려 퍼지고 있기에 흠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르게 합니다. 마리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지체는 여럿이지만 한몸을 이룹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선교 사였던 예수님께서 지니신 선교 정신은 아버지께 대한 사랑의 응답이었습니다. 성부와 완전히 일치되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쉼 없이 움직였던 사랑의 마음, 성령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난한 이 소외된 이 과부와 어린이, 외국인, 이방인(외국인노동자), 버림받은 이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야 예언자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기꺼이 그분의 도구로 쓰여짐입니다.

각 본당 안에 여러 신심단체가 있고 그들은 저마다의 특성에 맞게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특별히 남산성당의 해외선교후원회는 부산교구 안에 몇 개 없는 단체임에도 꾸준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5대양 6대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는 후원회원 여러분은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셨습니까?” 라고 여쭙게 될 때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더러는 국내에도 할 일이 많고 도와줄 곳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해외선교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매순간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가난한 이 소외된 이 버림받은 이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물질은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국경없는 사랑의 꽃을 피웁니다.

남산본당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선교 후원회 여러분께도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선교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견고히 해 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동안!

해외선교는 주님께서 맡긴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

해외선교후원회장 강 기 수 (마태오)

2011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우리 본당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여건속에서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가 지속적으로 여러 선교지에 후원 할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이끄심속에 시작된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의 나눔은 어느새 지구촌 나눔이 되어서, 이 시간에도 여러 선교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있으며, 후원 선교지마다 벅찬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실을 맺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정성 어린 기도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해외선교후원회는 본당의 다른 단체와는 달라서 홍보 등을 하지 않으면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신자들의 정성어린 사랑과 나눔으로 주님의 손길을 매번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교우여러분!

얼마전 우리 부산에서 세계개발해외원조총회가 개최되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최초의 나라” 라고하여 고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소득에 비해 해외원조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임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고, 저는 또한 한국천주교교회의 2010년도 해외원조에 대한 통계를 통해서 교우 1인당 연간 500원도 못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의 활동은 시기적절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는 본당을 넘어 범교구차원에서도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사랑의 결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외선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지상 명제로서 중단 할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의 나눔으로 도울 수가 있었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일은 간부 몇 사람으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 신자 한 분 한분 함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선교후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며, 우리 모두가 후방 선교사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한번 새해를 맞이하여 새 임원들과 함께 본당 해외선교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후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자비로운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내리기를 성모님을 통하여 간구합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이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36)

2011년도 해외선교 후원회 결산보고

♠ 2011년 해외선교 후원회 결산보고 ♠

(기간 : 2011. 1. 1 ~ 12. 31)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후원단체)	금 액
전년도 이월금	2,831,395	영원한도움의 성모수녀회(페루)	2,000,000
후원회비	21,006,000	프란치스코전교 수녀회(잠비아)	5,000,000
특별후원회비	7,340,000	예수성심전교 수녀회(마살군도)	2,340,000
이자	7,548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콰도르)	2,000,000
		한국의방선교 수녀회(볼리비아)	2,000,000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몽골)	1,000,000
		예수의 선교 수녀회(콜롬비아)	2,000,000
		요셉 수녀회(네팔)	2,000,000
		예수성심전교 수녀회(베트남)	2,000,000
		살레시오 수도회(몽골)	1,000,000
		김무웅 신부(파나마)	1,000,000
		작은 예수의 수녀회(브라질)	1,000,000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콩고)	1,000,000
		보혈선교 수녀회(콩고)	1,000,000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코트디부아르)	1,000,000
		사랑의 씨튼 수녀회(중국)	1,000,000
		한국의방 선교회(캄보디아)	1,000,000
		미사예불(1~12월)	240,000
		소계	28,580,000
		차기이월금	2,604,943
수입 합계	31,184,943	지출 합계	31,184,943

♠ 2011년 해외선교 후원회 활동사항 ♠

(기간 : 2011. 1. 1 ~ 2011. 12. 31)

월별	후원 단체	후원사업 내용
1	영원한도움의 성모 수녀회(페루) 프란치스코전교봉사 수녀회(잠비아)	빈민선교: 청소년 공부방지원(인력양성) 빈민교육사업: 토비트 세컨드리학교 책걸상 및 철판지원
2	예수성심전교 수녀회(마살군도)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콰도르)	빈민선교: 무료교육 등 지원 빈민선교: 이네셀 장애인 특수학교운영 및 빈민의료 지원
3	한국의방선교 수녀회(볼리비아)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몽골)	빈민선교: 코차밤바 공부방 지원 빈민선교: 빈민학교 운영 및 무료급식 지원
4	예수의 선교 수녀회(콜롬비아) 요셉 수녀회(네팔)	새삶센터운영: 무료급식, 교육, 의료지원 빈민교육사업: 무료교육 및 무료급식
5	프란치스코전교봉사 수녀회(잠비아)	빈민교육사업: 토비트 세컨드리학교 책걸상 및 철판 지원
6	예수성심전교 수녀회(베트남) 살레시오 수도회(몽골)	빈민교육사업: 어린이 무료교육 및 장애인교육 등 지원 빈민교육사업: 농업기술 교육 등 지원
7	김무웅 신부(파나마)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콰도르)	빈민선교: 26개 공소 빈민선교사업 빈민선교: 이네셀 장애인 특수학교 운영 및 빈민의료 지원
8	영원한도움의 성모 수녀회(페루) 요셉 수녀회(네팔)	빈민선교: 청소년 공부방 지원(인력양성) 빈민교육사업: 무료교육 및 무료급식
9	작은 예수의 수녀회(브라질) 예수성심전교 수녀회(마살군도)	요셉의집 운영 및 행려인 무료급식 지원 빈민선교: 무료교육 등 지원
10	예수의 선교 수녀회(콜롬비아)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콩고)	새삶센터운영: 무료급식, 교육, 의료지원 여성재활교육 및 어린이교육활동 지원
11	한국의방선교 수녀회(볼리비아) 보혈선교 수녀회(콩고)	빈민선교: 코차밤바 공부방 지원 학교시설: 바만야 여고 기숙사 매트리스 구입비 일부 지원
12	예수성심전교 수녀회(베트남)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코트디부아르)	빈민교육사업: 건터교구 가이랑분당의 어린이무료교육 및 장애인교육지원 빈민의료사업: 브릴리케양(풍토병)에 만연에 대한 의료 지원
	사랑의 씨튼 수녀회(중국) 한국의방 선교회(캄보디아)	빈민의료사업: 중국연길 서광의집 장애어린이교육 및 치료 지원 빈민교육사업: 프놈펜 코미소 직업학교 기숙사 건립

2011년도 해외선교 후원 회비 납부현황

♠ 2011년 해외선교 후원 회비 납부현황 ♠

(기간 : 2011. 1. 1 ~ 2011. 12. 31)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1구역〉			34	김해덕 / 켈마나	18,000
1	이영애 / 켈마	22,000	35	이상순 / 안젤라	60,000
2	이현식 / 다니엘	60,000	36	정현식 / 라우렌시오	75,000
3	조현호 / 벨라도	22,000	37	허성원 / 라우렌시오	60,000
4	윤정필 / 베드로	24,000	38	박정숙 / 엘리사벳	65,000
5	곽근희 / 요셉이나	60,000	39	강순조 / 아브라함	36,000
6	박유석 / 요셉	70,000	40	고유건 / 라우렌시오	70,000
7	박외숙 / M. 스텔라	120,000	41	박창언 / 요셉	22,000
8	김덕안 / 베드로	50,000	42	박지선 / 마리아	22,000
〈2구역〉			〈6구역〉		
9	이병재 / 요셉	36,000	43	오승철 / 안드레아	120,000
10	권미연 / 율리아나	10,000	44	강신수 / 예로니모	120,000
11	안혜숙 / 안젤라	36,000	45	손영식 / 로벨로	24,000
12	구정현 / 엘리야	120,000	46	최숙자 / 데레사	120,000
13	백순임 / 엘리사벳	60,000	47	김무자 / 마리아	60,000
14	박화춘 / 요한	120,000	48	김봉자 / 아나다시아	120,000
〈3구역〉			49	정동수 / 대견안드레아	100,000
15	전동조 / 아브라함	24,000	50	급병록 / 마태오	60,000
16	최병식 / 안토니오	36,000	51	배봉희 / 노엘라	61,000
17	우재권 / 요셉	140,000	52	허 만 / 베르나르도	60,000
18	정영혜 / 세실리아	60,000	53	김중곤 / 암브로시오	46,000
19	한성광 / 레오	35,000	54	김위규 / 요셉	40,000
20	유길호 / 시메온	60,000	55	정재운 / 율리아노	36,000
21	권영남 / 안셀모	4,000	56	정익성 / 아우구스티노	60,000
22	박기석 / 그레고리오	22,000	57	장상숙 / 마리아	18,000
〈4구역〉			58	채용배 / 보나벤투라	60,000
23	천춘식 / 니콜라오	40,000	〈7구역〉		
24	이광영 / 펠릭스	60,000	59	곽각순 / 시몬	24,000
25	정호기 / 안드레아	60,000	60	구인재 / 루피나	36,000
26	박정환 / 사도요한	65,000	61	이봉춘 / 켄셀	60,000
27	신현권 / 아우구스티노	60,000	62	서영우 / 아오스딩	24,000
28	김병홍 / 펠릭스	20,000	63	김완석 / 알폰소	120,000
29	박재호 / 예로니모	60,000	64	이정자 / 막달레나	24,000
30	강인수 / 미카엘	36,000	65	이승화 / 안토니오	24,000
31	이무옥 / 마리아	60,000	66	김이경 / 미카엘	60,000
32	권혜영 / 안젤라	36,000	67	지남숙 / 엘리사벳	60,000
〈5구역〉			68	전영자 / 베네란다	22,000
33	이민원 / 베드로	36,000	69	강영란 / 크리스티나	36,000
			70	김영순 / 나탈리아	60,000

2011년도 해외선교 후원 회비 납부현황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8구역>			108	장성길 / 시몬	10,000
			109	전상훈 / 안드레아	36,000
71	박희찬 / 요셉	30,000	110	강기수 / 마태오	120,000
72	박봉현 / 다미아노	4,000	111	최경자 / 아네스	24,000
73	송명섭 / 안토니오	24,000	112	김주경 / 엘리사벳	20,000
74	장두채 / 루카	24,000	113	허옥련 / 베로니카	24,000
75	박복래 / 마리아	50,000	114	서미영 / 아네스	140,000
76	이임출 / 율리아	50,000	115	이기만 / 도마	20,000
77	김원화 / 안젤라	24,000	116	최연이 / 잔다크	60,000
78	박정운 / 프란치스코	120,000	117	김기진 / 바오로	56,000
79	박태영 / 세례자요한	60,000	118	이정복 / 안드레아	55,000
80	전석도 / 이레네오	36,000	119	오광연 / 알베르토	30,000
81	이학열 / 베르나르도	120,000	120	김동훈 / 암브로시오	36,000
82	류건희 / 아네스	60,000	121	이임자 / 마틸다	65,000
83	서종한 / 아오스딩	5,000	122	박 호 / 요한	240,000
84	안말달 / 요안나	24,000	123	김영임 / 하상바오로	360,000
<9구역>			124	이재수 / 즈가리아	70,000
			125	문휴원 / 임마누엘	특5,000,000 600,000
85	김기택 / 세례자요한	65,000	<11구역>		
86	김수현 / 제노	24,000			
87	김현민 / 소피아	60,000	126	김준혁 / 베드로	120,000
88	강호구 / 제르비노	131,000	127	김분도 / 분도	36,000
89	박기봉 / 프란치스코	120,000	128	최경옥 / 벨라멧다	24,000
90	김숙해 / 에빈	60,000	129	박용득 / 요한	77,000
91	이상은 / 요셉	58,000	130	김춘명 / 아네스	36,000
92	임영호 / T. 아퀴나스	58,000	131	강문구 / 요셉	60,000
93	김균태 / 알로이시오	50,000	132	배명란 / 젤뚜르다	36,000
94	김동식 / 아오스딩	120,000	133	정정순 / 율리안나	24,000
95	장병수 / 그레고리오	39,000	134	정귀자 / 수산나	24,000
96	김대원 / 안드레아	60,000	135	이승민 / 미카엘	10,000
97	김형수 / 즈가리아	60,000	136	강용자 / 루실라	27,000
98	김영환 / 스콜라스티카	60,000	137	구증희 / 루카	특1,000,000 240,000
99	김의용 / 요한	650,000	138	박선호 / 요한	24,000
100	박영자 / 안젤라	36,000	139	오시용 / 프란치스코	240,000
101	김성수 / 프란치스코	600,000	140	이종만 / 베네딕도	4,000
102	류해전 / 스테파노	120,000	141	이종열 / 루카	60,000
103	양수남 / 크리스티나	24,000	142	조석제 / 베드로	24,000
104	김은희 / 마리아	39,000	<12구역>		
105	이장희 / 로마(노)	130,000			
<10구역>			143	김옥자 / 벨라멧다	45,000
			144	구희경 / 실비아	90,000
106	서정승 / 프란치스코	60,000	145	권병대 / 비오	60,000
107	박종임 / 예스텔	120,000	146	김길환 / 아우구스티노	65,000

2011년도 해외선교 후원 회비 납부현황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147	박영곤 / 안드레아	60,000	182	이정미 / 모니카	20,000
148	김재훈 / 스테파노	60,000	183	이상대 / 마르셀로	55,000
149	이용인 / 요한	120,000	184	류춘태 / 마리아	120,000
150	유동부 / 루까	60,000	185	김영운 / 루돌프	24,000
151	김명복 / 애드몬드	120,000	186	박민우 / 마르코	20,000
152	정춘옥 / 바실리아	36,000	187	금병호 / 요한	60,000
153	김완애 / 클라라	24,000	188	황영진 / 프란치스코	60,000
〈13구역〉			189	윤순옥 / 모니카	120,000
			〈17구역〉		
154	곽태훈 / 야고보	110,000	190	전순현 / 안나	120,000
155	김수자 / 마리아	85,000	191	이정희 / 데레사	48,000
156	정명화 / 구들라	10,000	192	김선옥 / 막달레나	4,000
157	최정임 / 유스티나	60,000	193	김광원 / 스테파노	60,000
158	김익태 / 비엔나	60,000	194	배민우 / 아우구스티노	24,000
159	이순자 / 스텔라	60,000	195	지은화 / 아네스	60,000
160	이분자 / 크리스티나	36,000	〈18구역〉		
161	김재섭 / 베드로	24,000			
〈14구역〉			196	설순심 / 안나	210,000
162	김영순 / 세라피나	60,000	197	조일제 / 마르코	120,000
163	황숙자 / 유리안나	36,000	198	정재식 / 프란치스코	60,000
164	차무언 / 베드로	60,000	199	김 욱 / 루까	160,000
165	최장승 / 요한	50,000	200	박수진 / 데레사	120,000
166	박정희 / 소피아	24,000	201	문주성 / 스테파노	210,000
167	차정옥 / 수산나데레사	36,000	202	박정엽 / 스테파노	24,000
168	김옥이 / 요안나	4,000	203	남광열 / 미카엘	24,000
〈15구역〉			204	김영철 / 요한	110,000
			205	이철주 / 그레고리오	60,000
169	김강빈 / 아우구스티노	24,000	206	김성환 / 요셉	240,000
170	김명숙 / 우슬라	24,000	207	안석수 / 아오스딩	120,000
171	김옥분 / 카타리나	60,000	208	유사순 / 마르타	24,000
172	김남희 / 도미니카	60,000	209	김양수 / 요한	60,000
173	성난희 / 아네스	45,000	〈19구역〉		
174	고영호 / 예로니모	20,000			
175	박호근 / 루까	30,000	210	이세용 / 리노	55,000
176	이수택 / 레오노렌마티노	120,000	211	이영화 / 루시아	480,000
177	김종학 / 프란치스코	55,000	212	김영희 / 마르타	60,000
〈16구역〉			213	박해정 / 프란치스코	24,000
			214	이국수 / 미카엘	60,000
178	윤정자 / 루시아	24,000	215	강희선 / 아타나시오	60,000
179	엄향숙 / 데레사	36,000	216	나모성 / 시몬	60,000
180	길창순 / 시몬	24,000	217	이부식 / 안토니오	100,000
181	최종걸 / 안드레아	300,000	218	김구용 / 요셉	24,000

2011년도 해외선교 후원 회비 납부현황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번호	성명 / 세례명	금액
219	김갑룡 / 요한	60,000	254	서영란 / 마리안나	130,000
220	설상국 / 스테파노	65,000	255	이정림 / 카타리나	24,000
221	김정자 / 안나	24,000	256	박형욱 / 마르셀리노	18,000
222	우향기 / 데레사	65,000	257	김정면 / 대건안드레아	100,000
223	김영희 / 카타리나	60,000	258	박봉원 / 엘리지오	260,000
224	김무남 / 아우구스티노	24,000	〈24구역〉		
225	방상청 / 마르코	24,000			
226	김성덕 / 대건안드레아	60,000	259	원덕희 / 베드로	60,000
227	김동수 / 알로이시오	120,000	260	이상관 / 그레고리오	130,000
〈20구역〉			261	박진익 / 마르코	220,000
			262	이종길 / 에밀리오	120,000
228	강병화 / 가밀로	120,000	263	고준태 / 알비노	60,000
229	권오기 / 그레고리오	60,000	264	이희영 / 베드로	120,000
230	박성희 / 아네스	240,000	265	최민혜 / 미카엘라	36,000
231	나희수 / 요셉	20,000	266	신정남 / 크리스티나	15,000
〈21구역〉			267	신종문 / 루치오	22,000
			268	강철중 / 그레고리오	60,000
232	이종기 / 라우렌시오	60,000	269	윤양현 / 안토니오	55,000
233	장창오 / 요셉	60,000	270	유석준 / 도미니카	55,000
234	류완수 / 베드로	120,000	271	강동석 / 알로이시오	140,000
〈22구역〉			272	이갑승 / 라파엘	120,000
			273	정가희 / 프란치스코	55,000
235	이희경 / 글라시아	24,000	274	김찬득 / 야고보	120,000
236	정옥이 / 끌리레아	25,000	275	박태민 / 다니엘	360,000
237	이상숙 / 수산나	60,000	〈기타 구역〉		
238	김영화 / 아우구스티나	36,000			
239	이정희 / 소피아	24,000	276	서수일 / 발렌티노	60,000
240	김대경 / 바오로	59,000	277	김동숙 / 로사리오	24,000
241	박보영 / T. 아퀴나스	120,000	278	문주덕 / 사도요한	32,000
242	김혜자 / 엘리사벳	55,000	279	최영수 / 요셉	25,000
243	김수동 / 라파엘	60,000	280	박성욱 / 다윗	15,000
〈23구역〉			281	최원필 / 안젤라	36,000
			282	김영아 / 아니타	120,000
244	최병림 / 요한	36,000	283	서옥숙 / 아네스	20,000
245	조진호 / 보나베틀라	120,000	284	정태하 / 프란치스코	60,000
246	최용석 / 요셉	6,000	285	노남경 / 안나	120,000
247	장혜진 / 리비아	60,000	286	조은지 / 미카엘라	5,000
248	이숙종 / 실비아	36,000	287	박정순 / 율리아나	50,000
249	장종희 / 마리안나	60,000	288	김정은 / 라파엘라	30,000
250	조성목 / 프란치스코	120,000			
251	이복률 / 바오로	120,000			
252	김영찬 / 시몬	50,000			
253	김정희 / 실비아	60,000			

콜롬비아

에서 온 소식

수신 : 부산남산성당 오창열 사도요한 주임신부님

2011년 1월 25일

참조 : 해외선교후원회 강기수 마태오 회장님

사도 바오로 회심 축일을 지내며 주님의 은총으로 얻은 그분의 회심이 쏟아 부은 선교의 열정이 여전히 선교사를 통하여 계속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저희 예수의 선교 수녀회가 콜롬비아에서 전개한 작은 선교 열정이 부산 남산 성당의 후원회원들이 협조한 사랑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으로 시작된 저희 수녀회가 열악한 조건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며 사랑의 기적입니다.

그동안 미약하나마 깔다스 교구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지만 2011년부터는 깔다스 교구의 어려움으로 온전히 저희 수녀회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산 남산 성당 해외 선교 후원회가 연 이 백만원(₩2,000,000)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새삶센터' 프로젝트를 보내 드리는 것은 그 실상을 참고하시고 이미 도와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리는 한편 지원이 더 가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여쭙고자 함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창열 사도요한 주임 신부님의 친절하신 배려에 감사드리며 모든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주님 은총으로 본당의 선교 열정이 주님 나라를 앞당기고, 후원회의 발전으로 온 세상이 빛을 얻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선교 수녀회 한국분원장

유영월 베로니카 수녀 드림

마살
군도

에서 온 소식

† 주님의 자비

해외선교후원회 회장님,

은혜롭고 자비 가득한 사순시기입니다. 기도와 삶으로 성실히,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남산 성당 가족, 가족들에게 이곳 마살 아일랜드, 따뜻한 날씨와 함께 레나타 수녀 소식 전합니다. 모기와 전쟁 잘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며, 주어진 사도직 즉 가난한 학생들과 기쁜 마음으로 바이블, 음악을 가르키며 감사하는 삶을 꾸립니다. 단순하고, 순박한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희생과 절약으로 모아 보내 주신 선물로, ST. JOSEPH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TV, DVD, VCR, 그리고 오르간을 준비했습니다. 남은 부분은, 갑자기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SELVINIUS 43세의 가족 (유1명, 초1, 초4, 고2)을 위해서 도왔습니다. 가난하지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 보면서, 가진 것 없지만, 그들이 지닌 성품의 차이점을 존중하며, 서로 배우는 관계를 다양한 상황에서, 연대하는 삶, 나눔을 일상의 생활로 여기는 선한 마음을 보면서 배워갑니다.

마태오 회장님, 새로 부임하신 주임 신부님, 잘 협조하며 하나된 가족 공동체 되길,-- 복된 사순시기 되길 기도합니다. 건강 하십시오.

2011. 3.13

남산성당 가족들을 기억하는, 마살에서 레나타 수녀 드림.

볼리비아

선교사의 꿈

†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존경하올 사도요한 주임신부님과 해외선교 후원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멀리 지구 반대편 볼리비아 코차밤바 선교지에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일전에 저희 후원회 담당 수녀님으로부터 남산성당의 해외선교후원회 분들이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외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이 선교의 꽃을 함께 피워가 는 분들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 후원회원님들이 기도와 희생으로 함께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선교사들도 씩씩하 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사랑은 이곳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여질 것입니 다. 미래형으로 말씀드린 이유인즉, 내년 초쯤에 어린이 공부방 건축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로 대략 50명의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필요한 시설을 마련할 계획으 로, 지금은 건축 기금에서부터 법적인 수속에 이르기까지 준비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까요. 선교사들이 외롭거나 지치지 않도록 신부님과 후원회원님들께 모쪼록 지속적인 지원을 청하면서 감사에 대신합니다.

은혜로운 사순시기 되시길 빌면서~

2011. 4. 8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코차밤바에서

네팔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전에 전화 받고, 성당 내에 있는 학교인 '레지나 아모리스 학교' 교장 수녀님 (까르밀라 수녀님)께 전화 드려서 의논했습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부분 등은 수녀님이 제 이메일로 보내 주신다 했습니다.

레지나 아모리스 학교는 성당내에 있는 무료 학교입니다. 학비는 무료이고, 남학생만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1~5학년까지 있는 전체학생수는 120명 정도이고, 점심은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유니폼, 학교 책 등은 개인 구입해야 하는데, 형편 안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학비 무료인 학교에 올 정도이니 사정 딱한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후원금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여러가지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점심 제공하는 돈도 후원금으로 꾸려가시는 형편이라 사정은 어렵습니다.

네팔 본당 신부님이 후원을 받아 오시는데.. 요즘은 거의 어려운 분들이 많아 여의치 않다 하십니다.

예전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유니폼, 교재 구입 등 하였고, 유니폼을 다 맞춰 주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보내주신다면, 추가 유니폼 구입, 교재 구입, 도서관내의 책 구입 등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후원금의 사용처는 본당 신부님께 먼저 여쭙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셨습니다)

수녀님 메일 오면 다시 편지드리겠습니다.

2011. 4. 19.

네팔에서 김레지나

파나마 의 소식

찬미예수님!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님께
저희들이 달려야 하는 삶의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 가야 하는 도중의 삶들이 그리 쉽지 않음을 저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길은 누구의 인정이나 찬사를 받고자 함이 아니기에 다가온 신앙의 힘을 부여받고 묵묵히 갈 뿐입니다.

지금 저도 그러합니다. 지난 6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의 힘든 것들이 많아 버거워했지만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여받은 사명을 다시 이고 가고 있구요.

지난해 새로 축성한 성당만이 아니라, 공소 26개가 있는 새로운 임지까지 같이 책임 맡고 일하고 있으며 거리가 차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두 성당만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선교사제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것까지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시간적 여유도 그리 없고, 다소 피곤 함을 느끼기에, 글도 잘 써지지 않습니다. 새로 옮긴 곳도 인터넷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 더욱 그러하구요.

인사이동 한 지가 일주일 겨우 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안정이 되면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회원 분들께도 인사를 드려 주십시오.

2011.8.3

파나마에서 김 이나시오 신부 드림.

브라질 에서 온 편지

존경하는 오창렬 사도요한 신부님께

안녕하세요.

가을을 알리는 따가운 햇살이 무척이나 정겹고 벼이삭이 하나 둘 노랗게 변하는 모습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강기수 마태오 형제님의 전화를 받고 인사드립니다. 한국지부 보혈선교 수녀회의 지부장은 장효숙 수녀님이시고, 저는 권마리아 수녀입니다.

저희 보혈선교수녀회는 1885년 남아프리카 마리아힐에서 프란치스코 판너 대원장님이 창설하신 국제 수도회로 현재 22개 나라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5년 전인 1986년에 수도회 100주년을 맞아 당시 청주교구 교구장이셨던 정진석 추기경님의 초청으로 청주교구에 진출하여 현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다문화센터, 본당, 어린이 집, 피정의 집의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려운 지역을 남산성당 신자분들의 정성으로 도와 주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수녀들이 있는 곳 중 콩고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교통이 불편하여 학교를 가려면 많은 학생들이 배를 타고 6-7 시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어서 학교 기숙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곳은 콩고 Bamanya 지역에 위치한 Lycee Efohu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기숙사는 아직 침대 매트리스가 없어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학생 수는 230여 명으로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녀님들은 침대 매트리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남산성당 신자분들의 귀한 사랑의 손길이 선교지역에 큰 힘이 될 것임을 믿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임 신부님과 본당 공동체의 모든 신자분들에게 주님 사랑 가득하길 저희 수녀들은 기도드립니다.

2011. 9. 17 보혈선교 수녀 권마리아수녀

잠비아에서 온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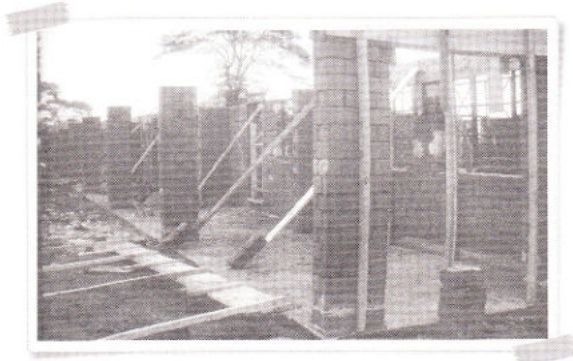
♣ 알렐루야 해외선교 회원님께

아프리카 잠비아 안토니미션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시작한 지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이들이 공부할 책상과 의자, 칠판이 없어서 내년에 오픈을 앞두고 마음고생과 말라리아로 고생하는 수녀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주신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여러분께 부활의 인사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책상 앞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도와 주시면 내년에는 학교를 오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합니다

2011. 4.

아프리카 잠비아선교후원회 드림

♣ 잠비아에서 임마누엘형제에게 온 소식



† 평화와 선

임마누엘형제님

한여름을 느낄 수 있는 날씨입니다.

안토니미션에서 학교 건축을 위해서 고생하는 수녀님들에게 작은 빛줄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적어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주고 싶어하는 수녀님들의 소망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도움의 손길을 청해 보았는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제님이 힘과 용기를 주었기에 다시 한번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느님께서 다 채워주시길 기도드리며 안토니미션에서 책상에 앉아 기도하는 아이들 모습을 떠올리며 감사의 인사와 기도 중에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2011. 6.7

정프란치수녀올림

브라질에서 온 소식

찬미예수님 !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요한 3.30)

2천년 전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저희 수녀회의 사명으로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을 살고 있는 작은 예수 수녀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주임신부님과 후원회 회장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보내주신 사랑나눔 기금은 소중하고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작은예수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브라질 원주민인 행려인 무료급식이고, 문화사업은 한인교포사회를 위한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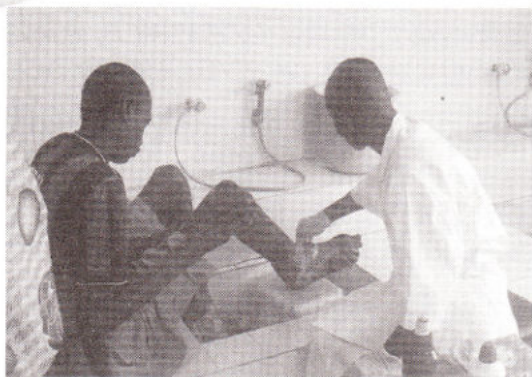
요즈음은 모두 재정적으로 많이 힘이 들어 사랑 나눔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소외된 계층과 함께 하는 명절을 맞이하신 주임신부님과 후원회회장님 이하 남산 성당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이 가득한 추석명절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2011. 9. 10

작은 예수 수녀회 세실리아 수녀 드림

아프리카
코트디
보아르

에서 온 소식



아직까지 침대랑 항구에 도착해 있는데 언제쯤 세관을 통과해서 부아케에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 한 가지는 축성식 직전 병원운영허가증을 받았습니
다. 수술실 기구는 10월 중순경 하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아마도 올해 안에는 되리란 희망을 가집니다. 제 나름대로는 간소하게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는 부아케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브릴리의 궤양쪽에서는 우리 시설이
5개의 시설 중 마지막 시설이어서 다른 시설의 난점을 보완할수 있어서 조금 더 현대적이란 평가를 받았구요.
한국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개인 의원 정도의 시설이지만 이곳에서는 엄청 크게 평가를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한 상처 환자들이 시간이 지남과 함께 걷고, 또 심한 상처로 인해서 불구가 될 확률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물리치료와 함께 불구를 면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제 올 12월이면 ONG Vatelot 에서 지원하는 운영부분은 끝이 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스페인의 아네스 바드에서 브릴리의 궤양 환자부분은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들 그리고 병원 운영비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브릴리의 궤양 환자 이외의 엄청난 상처 환자들이 모두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정식으로 치료비를 받으면, 아무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분원은 운영의 현실적인 부분과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 작은 치료비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무료로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이유로 이들을 돌려 보낸다면, 결국은 그들에게 죽음밖에 기라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가까이 살고 있는 14세 가량의 소년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다리에 상처가 아직도 낫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곳 병원을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무료로 상처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상처가 조금 나아지면 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따라 밭에 일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올수도 없는 상황이고, 치료하러 오는 날이면, 새까만 붕대가 되니 상처가 나을 수가 없고, 결국은 다른 다리까지 상처를 만들면서 며칠 전에 또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미셀린 수녀님이 이 청년을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한국에서 온 옷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 입히고, 새 신발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빨아서 재사용하는 붕대보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얇은 거즈 붕대가 낫다 싶어 그렇게 상처치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곳을 개원할 때부터 오는 낫지 않는 환자들이 있는데, 혈액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궤양은 참 어렵습니다. 이들이 입원치료를 원하지만, 다 받을 수도 없고, 병원을 시작한 후부터 계속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수술실이 준비되고 나면, 조금 이런 환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을 가져 봅니다. 이곳에 사는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든 것은 현실적인 상황과 그리고 최대한 환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때론 가슴 아프지만, 거절해야 하고,,

그래서인지 예수님 시절의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 가난을 구제하지 않으셨고, 그 가난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가르쳐주셨고,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모두는 아니지만 그 중의 얼마는 질병을 고쳐주셨고 생명을 살리셨음을 보면서 우리도 모두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한계와 범위 내에서 생명의 봉사를 할 수 있음에 만족해야 하겠지요.

2011년 10월 14일

코트디보아르에서 박 프란치스카 수녀 드림

♠ 2011년 해외선교 후원회 소식 ♠

(기간 : 2011. 1. 1~ 12. 31)

- ◆ 2011. 1. 30 해외원조 주일을 맞아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소식지 “케리그마”(통권제9호)지를 신자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 ◆ 2011. 2. 9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결산보고 및 2011년도 사업계획 검토, 회칙개정과 임원선출이 있었으며 회장 강기수(마태오), 총무 조강현(가밀라), 회계 박정운(프란치스코)형제가 각각 1년 임기로 선출되었습니다.
- ◆ 2011. 3. 13 해외선교 운영위원으로 박태영(세례자요한)형제를 위촉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2011. 3. 29 해외선교후원회 월모임을 당초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던 것을 변경하여 매월 4째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개최기로 하였습니다.
- ◆ 2011. 5. 9 콜롬비아에서 선교활동 중인 예수의 선교 수녀회의 한국 분원장인 류위숙(베로니카)수녀와 에바도르 출신인 임마누엘라수녀가 부산 방문차 와서 운영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선교지 현황과 후원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 2011. 5. 16 문후원(임마누엘) 형제께서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에서 잠비아에 건축중인 미션학교 돕기 후원금으로 50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선교지의 큰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증회(루카) 형제님께서 해외선교 특별후원금으로 10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2011. 5. 17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설립 25주년을 맞아 부곡동 본원에서 기념미사와 축하식에 후원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 2011. 5. 21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소속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중인 최선미 (요셉피나)수녀와 볼리비아에서 선교 활동한 김경향(크리스티나)수녀께서 휴가차 본당을 방문하여 주임신부님을 면담하고 선교현황과 도움을 요청하였고, 또한 당일 예수성심전교 수녀회 소속으로 마살군도에서 선교중인 이레나타 수녀께서 인사차 본당을 방문하여 주임신부님 면담을 통해 선교 현황설명 함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 2011. 6. 1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소속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중인 최요셉피나 수녀가 본당 오전 10시 미사시간에 선교활동 보고가 있었고 미사 후에는 후원회원 모집이 있었습니다.
- ◆ 2011. 6. 29 후원회장이 망미성당 오남주(프리모)신부님을 인사차 방문하고 해외선교활동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 ◆ 2011. 7. 21~23 본당 제단체에 대한 감사로 해외선교후원회도 관계서류 제출하여 잘 마쳤습니다.
- ◆ 2011. 7. 31 예수성심전교 수녀회 소속으로 마살군도에서 선교 활동 중인 이레나타수녀께서 본당을 방문하여 후원회원 모집과 특별선교기금 모금행사를 가졌으며 이날 특별선교기금 1,340,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 2011. 10. 2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를 창설하신 오남주(프리모)신부님 은퇴 미사가 망미성당에서 있어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신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2011년도 해외선교 후원회 소식

- ◆ 2011. 10. 7 예수회 선교 수녀회에서 소사 본3동 성당에서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시, 꺼공시의 꿈꾸는 다리 프로젝트, 필리핀 보홀 로이 마을 성삼위 일체학교 프로젝트, 콜롬비아 새삶센터 돕기 후원금 마련을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후원회에서 콜롬비아 새삶센터 돕기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 ◆ 2011. 11. 1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에서 해외선교 소식지인 “띠앗누리”가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을 축하하오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011. 11. 13 후반기 해외선교후원회원 모집 활동하여 당일 신규회원 13명이 가입 신청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2011. 11. 26 운영위원들이 지난 6월에 은퇴하신 오남주 프리모신부님을 자택으로 찾아 원로신부님께 인사 드리고 그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 ◆ 2011. 12. 7 남산성당해외선교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사업결산보고 및 회칙개정 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 2011. 12. 24 2012년도 해외선교후원회 새 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회장:조성묵(프란치스코), 총무:박태영(세례자요한), 회계:박정운(프란치스코)형제가 임명되었으니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바랍니다



몽골의 아이들(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볼리비아 아이들



베트남의 빈민주거



네팔에서 온 사진



코트디부아르 브릴리퀘양 환자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문



자비로우신 하느님아버지
당신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가 돕고자 하는
선교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의 모임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 하오니
아직도 당신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 받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또한 저희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저희의 활동이 결코.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기도와 자선과 봉사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며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모임이 더욱더
충실해지기를 비오며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지극히 사랑하옵 예수님,
은인들을 기억하시어
선교 사업을 위하여 도와주신
모든 은인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가 하는 일

- 범 교구적 해외선교와 국내 해외선교기관을 후원합니다.(선교회, 수도회)
- 해외선교 후원회 회원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본당 사무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후원 회비는 월 2,000원 이상이고, 본당 사무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매월 둘째주일 오전 9시 미사에는 해외선교 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봉헌이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로 문의 바랍니다.